



사회복지법인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모두가 인간답게 사는 세상 2013 Winter vol.357 나눔+



사회복지법인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모두가 인간답게 사는 세상
2013+WINTER vol.357

나눔+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갈라디아서 5:14)

Mission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존엄한 삶을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데 헌신합니다

Vision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사회복지관

본당 중심의
지역사회 발전을 지향하는
교구사회복지회

미래 사회복지를 선도하는
전문사회복지기관

함께하는 모든 이들과 소통하고
연대하는 네트워크기관



SPECIAL THEME

카리타스, 조화를 이루다



04 카리타스, 이웃 속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행복한 동행,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가 실천합니다

07 카리타스, 이웃과 함께
사랑으로 함께 가는 우리

08 카리타스, 이웃을 만나다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와 역삼동성당이
함께 하는 구립 신한마리오어린이집

12 카리타스 특
오대일(요셉) 신부에게 듣는 카리타스 이야기

16 명화속 카리타스
은총을 받은 이여, 기뻐하여라

18 김수환 추기경에게서 배우는 카리타스
모든 계명의 중심, 이웃 사랑

20 전문가 칼럼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나라”
가톨릭 그리고 나눔에 관한 이야기

24 나눔의 길에서 만난 사람들
마장동 성당
이종생(필립보) 사회사목분과장

26 오늘은 어떤 일이
좋은 소식 & 뜻깊은 행사

28 카리타스와 친해지기
카리타스 실천에 한걸음 더 가까이

31 카리타스 가족을 소개합니다

34 카리타스 소식

36 받은 편지함, 보낸 편지함

38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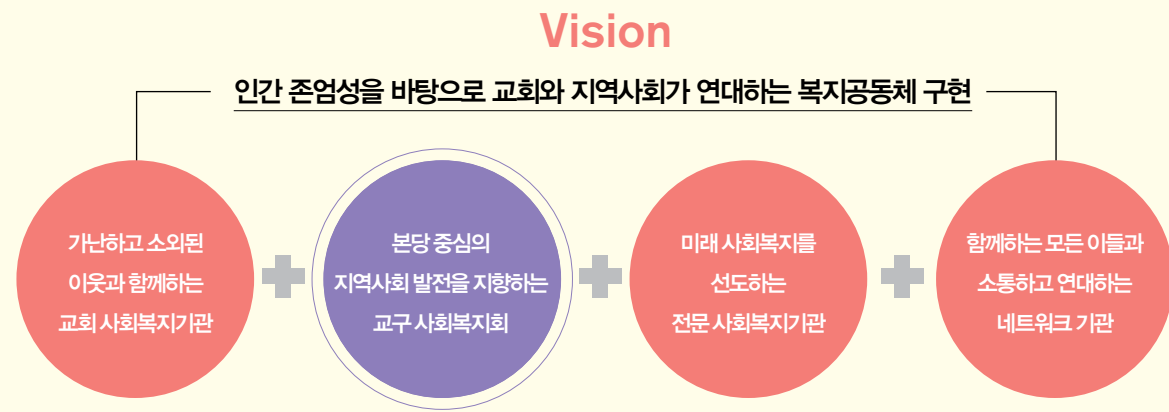
Contact

서울시 중구 명동길 80번지 가톨릭회관 4층 자원개발팀 02-776-8810
재무·행정팀 02-727-2253 사회복지팀 02-776-1314
교육·홍보팀 02-727-2256 서울카리타스자원봉사센터 02-727-2248

2013 Winter <나눔+> 발행일 2013년 12월 23일 발행인 정성환 발행처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담당 및 문의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교육·홍보팀 홍보담당 송세암 02-727-2256
기획·디자인(주)평화드림 02-2258-8445 사진 남기용, 이한석 인쇄·제작 르베르쉴 02-548-8903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에서 발행하는 소식지 <나눔+>는 무료로 배포됩니다.
<나눔+>는 인터넷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www.caritasseoul.or.kr/bokji <나눔+>의 저작권은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에 있습니다. Copyright©caritasseoul.all rights reserved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행복한 동행,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가 실천합니다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는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교회와 지역사회가 연대하는 복지공동체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본당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행복한 동행의 길을 걷고 있는 교구 사회 복지회 사업의 이모저모를 살펴본다.



교회가 크는 나눔, 교회로 크는 나눔

2013년 교구사업복지회 세부사업 평가

2013년, 본당 중심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교구 사회복지회 세부사업은 어떻게 진행되었을까?

지역사회와 함께 조화를 이루며, 더불어 발전하기 위해 노력해 온 현장의 목소리와 세부사업에 대한 평가에 귀 기울여 보자.

사회복지팀

교구와 지역, 본당 간의 유기적인 협력관계와 전문성, 연대성 구축을 위하여 노력했습니다. 본당 사회사목 자문위원회 운영, 본당 사회사목분과 정기모임, 본당과 시설의 네트워크 회의, 사회사목담당 사제협의회 등을 추진하여 원활한 소통구조는 확립되었지만, 앞으로 좀 더 활성화 하기 위해 노력할 생각입니다.

또한, 사회사목시범 본당, 본당 지원사업, 김장 · 쌀 나눔 행사 등을 통해 지역 내 소외계층에게 본당차원의 나눔과 사랑을 실천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외부 모금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향후 본당의 사업수행에 대한 전문적 지원체계 부분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자원개발팀

사순시기 신자들에게 주보간지 안내를 통하여 후원금 사용 내용을 보고하고, 사순의 의미를 전달하여 신앙 안에서의 나눔과 자선에 대한 가치를 전파하였습니다. 또한, 본당 모금을 통하여 소외되고 가난한 이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사랑을 실천하고 나누는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향후에는 보다 더 신앙과 자선이 함께할 수 있도록 나눔(자선)문화(가치) 전파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교육홍보팀

교육 · 홍보팀은 2013년 한해 본당 안에서 사회복지인력 양성을 위한 대상별 교육을 체계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본당에서 사회복지활동을 이끌어 가는 사회사목분과장님들을 대상으로 가톨릭사회복지학교와 사회사목분과장 교육을 진행하였고, 전 신자를 대상으로 나눔의 묵상회 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아직은 체계화, 활성화 되지 못한 면도 있지만, 진행하고 있는 교육에 좀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지역사회 안에서 본당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교육의 홍보와 내용의 강화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 통합네트워크시스템 등록요원양성 교육 시, 본당을 대상으로 별도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스템 우수 본당 사례를 안내하여 본당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들이 자원봉사활동으로 관리될 수 있다는 인식의 공유를 이끌어 냈습니다. 하지만, 사용상의 확대에는 제한적이었습니다. 자원봉사 통합네트워크시스템을 사용하는 본당을 방문하여 사용상의 의견을 수렴하고 더불어 본당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는 추후 전문가 참여로 체계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비전 2에 해당하는 2013년 사업소개

서울대교구 사회사목사제협의회

서울대교구 내 사회사목을 담당하고 있는 사제협의회 운영과 회의를 통해 지구 내 사회사목담당 사제들과 연대 및 소통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지구 및 본당 사회사목의 활성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본당 사회사목 공모지원사업

본당 사회사목활동이 체계적, 전문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안내, 지원함으로써 본당 사회사목 활동의 기반을 마련하고, 교회의 소명인 이웃사랑 실천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회사목시범 본당 운영

사회사목 시범본당 운영을 통해 본당 공동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방법의 사회사목활동을 연구, 지원하여 본당 사회사목의 롤 모델로 본당 사회사목을 활성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톨릭사회복지학교

가톨릭사회복지학교는 1999년부터 시작되어 올해까지 18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본당 신자들의 사회복지활동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표적인 교육과정입니다. 올해 진행된 18기 가톨릭사회복지학교에는 33명이 참여해 주셨고, 총 31분이 수료하셨습니다. 이 교육과정을 통해 가톨릭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국가 정책에 대한 이해, 본당 사회사목활동에 대한 이해 증진 등 다양한 내용을 배울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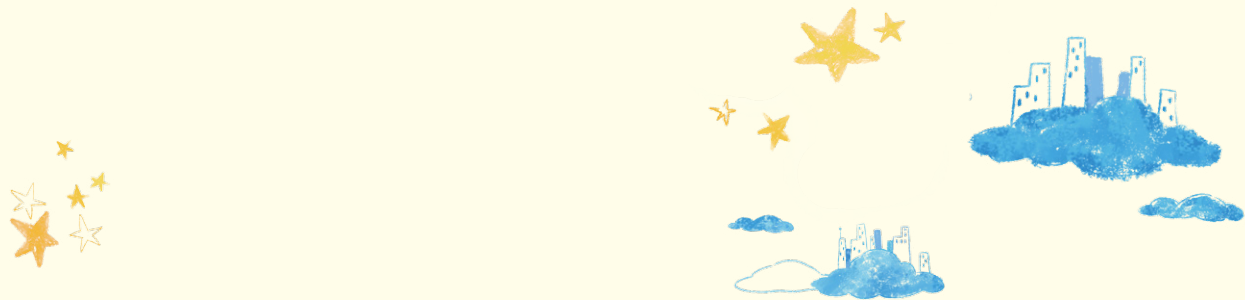
자선주일 모금

자선주일 모금은 본회에서 대림절 동전저금통을 제작하여 각 본당에 배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신자들이 대림 시기동안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 주위의 어려운 이웃에게 관심과 사랑을 베풀 수 있게 하고자 이루어지는 모금활동입니다.

자원봉사 통합네트워크시스템 등록요원양성

자원봉사자 개인정보와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총체적인 관리시스템으로 다음의 기능을 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자원봉사자의 정보와 활동사항 관리, 활동 확인서 발급
- 본당 자원봉사활동의 통합적 관리
- 자원봉사활동일감 조회 및 자원봉사자 검색 기능
- 자원봉사자와 활동처와의 연계



본당 중심의 지역사회 발전을 지향하는 교구사회복지회

주요시책	중점 추진 사업		담당부서
교구 · 지역 · 본당 간의 사회사목 소통 및 협력체계 강화	추진방향	교구와 지역, 본당들 간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효율적, 효과적인 방안 마련	사회복지팀
	세부사업	교구 · 지역 · 본당 · 시설 간 네트워크 활성화(지구 내 본당 사회사목분과 정기모임, 지구 내 본당 시설과의 네트워크 회의, 서울대교구 사회사목분과 협의회, 서울대교구 사회사목사제 협의회)	
본당의 지역사회 내 나눔 실천을 통한 소외계층 지원 확대	추진방향	초대 교회공동체의 모습과 정신을 이어받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본당 차원의 친밀한 나눔과 사랑이 실천될 수 있도록 안내, 지원	사회복지팀
	세부사업	본당 사회사목 공모지원사업, 김장나눔 행사	
본당사회사목 활성화 및 지역 내 본당과 사회복지기관의 연대성 강화	추진방향	본당사회사목 활성화를 위한 가톨릭사회복지 인력 발굴, 양성, 인력배치, 활용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시설종사자, 본당 사회사목분과장 간 연대성 향상 방안 수립	사회복지팀
	세부사업	본당 사회복지 인력에 대한 대상별 맞춤 교과과정 구성으로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체계 확립	
본당사회복지 인력 양성을 위한 대상별 교육 체계화	추진방향	본당 사회복지 인력에 대한 대상별 맞춤 교과과정 구성으로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체계 확립	교육홍보팀
	세부사업	사회사목분과장 대상(가톨릭사회복지학교, 사회사목분과장 교육, 구역(반)장 대상(견진교리, 사회복지 특강), 나눔의 묵상회	
본당 내 나눔 문화 확산	추진방향	본당과 연계된 모금활동 강화 및 신규사업 개발	자원개발팀
	세부사업	사순절 및 자선주일 모금, 본당 방문 모금	
본당 자원봉사활동의 새로운 인식 및 체계적 확산	추진방향	자원봉사통합네트워크시스템을 이용하여 본당 중심의 지역, 재가복지사업을 자원봉사활동으로 안내 및 사용 확대	자원봉사센터
	세부사업	자원봉사통합네트워크시스템 등록요원 양성, 시스템 홍보	
본당 자원봉사활동 연계 강화 및 활성화	추진방향	시스템 사용 우수 본당에 대한 지원체계 강화	자원봉사센터
	세부사업	시스템 사용 지침 제작, 가톨릭적 인정보상제도 마련	

사랑으로 함께 가는 우리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성탄의 계절을 기쁨으로 누리며, 지난 2013년과 다가올 2014년 펼쳐질 본당사회사목 지원사업에 대해 살펴보하고자 한다.

현대사회의 세계화, 정보화, 고령화, 기계화 등의 특성은 성장주의, 물질주의, 개인주의, 세속주의 등으로 이어지면서 한국 교회에도 종교적 나태함, 중산층화 로 인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무관심 등 많은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현재 서울대교구 내 220여 개 본당의 사회사목분과와 빈첸시오회 등 봉사단체가 조 직되어 활동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회현상을 비추어 보았을 때 본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 또한 지속적으로 늘어가야 할 것이다. 서울가톨릭사회복지 회는 교회의 소명인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본당사회사목 활동'이 체계적, 전문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안내, 지원하기 위해 매년 본당사회사목 공모지원사업 을 접수 받고 있다.

2013년도 서울대교구 본당사회사목 공모지원사업 선정본당

지구	본당 명	프로그램 명
1	한남동	저소득층 어르신과 다문화가정에 “영양과 정성과 사랑” 등백!
	해방촌	사랑의 반찬과 영양밥 나눔
	후암동	빛나라공부방 평생튼튼 요가
3	녹번동	저소득 독거노인 생활필수품 지원 및 말반찬 지원
5	중계동	독거노인 및 저소득층가정 사랑의 반찬나눔
6	창5동	창5동 주민센터와 연계한 관내 불우이웃 돕기
	미아동	어르신들의 행복한 여행
8	아차산	비신자친구 초대하여 노년기 발달과업 자아 통합 이루기
9	자양동	맞벌이가정 아동의 방과 후 학습 도움지원사업
11	개포동	쪽방촌 아이들 엄마 자존감 찾아주기
13	신사동 성베드로	임마누엘 관악1공동체 장애우 자립심 키우기 도우미
16구로	고척동	정서적인 안정과 건강한 청소년기를 위한 협력[요개]
	수궁동	저소득층과 독거노인을 위한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사업
18양천	신정동	어려운 이웃과 여행을 통한 사귄성당과 결연사업

2014년도 서울대교구 본당사회사목 공모지원사업 선정본당

지구	본당명	프로그램명
6	6도봉강북지구	빈곤층 노인들의 나눔이
8	8성동광진지구	다문화가정의 불화로 인한 가출여성에 대한 돌봄사업
1	한남동 본당	저소득층 및 독거어르신과 다문화가정을 위한 말반찬 나눔
1	해방촌 본당	사랑과 정성의 도시락 나눔
2	무악동선교본당	지역 내 저소득계층과 어르신을 위한 반찬 나눔
3	녹번동 본당	저소득가정, 독거노인 생활필수품 지원 및 말반찬 지원
5	하계동 본당	독거어르신 및 저소득층 가정의 사랑 나눔
5	상계2동 본당	본당 내 유류공간 활용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문화 및 건강프로그램 운영
6	쌍문동 본당	독거노인과 소외계층이 함께하는 사랑의 고리 만들기
6	창5동 본당	창5동 주민센터와 연계한 관내 불우이웃 돕기
6	번동 본당	빈곤층 어르신을 위한 피점 겸 여행
7	망우1동 본당	노년기 삶의 유익미한 마무리를 돕는 어르신 미술프로그램
13	신사동성베드로 본당	조원 지역아동센터 자녀들의 정서지원을 위한 나눔 도우미
16	고척동 본당	아동들의 정서적 신체적 균형발달을 위한 체력활동
18	신정동 본당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이웃사촌 행복나눔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와 역삼동성당이 함께 하는

〈구립 신한마리오어린이집〉

지난 9월 6일, 역삼동 일대가 북적거렸다. 역삼동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구립 어린이집이 준비 끝에 마침내 연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강남구청, 신한은행,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역삼동 본당이 한마음으로 만든 이곳 어린이집의 개원을 축하했다. 포용과 온화함, 사랑의 가톨릭 정신으로 아이들을 보육하며 인근 학부모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신한마리오어린이집에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가 다녀왔다.



마당이 있는 곳, 사랑이 넘치는 곳

신한마리오어린이집에 들어서자 넓은 안마당이 눈에 들어온다. 주택을 개조해서 만든 터라 보육시설이 아니라 평범하고 따뜻한 여느 가정집에 들어선 것 같다. 지하 1층부터 2층 까지 오밀조밀 밝고 귀여운 인테리어로 이루어진 각 방이 방문객들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매주 친 선생님들은 방문객을 향해 활짝 웃으며 인사를 건네고 아이들은 두 손을 앞으로 곱게 모은 채 허리를 숙여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한다.

신한마리오어린이집은 역삼동 성당,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그리고 강남구가 힘을 모아 만든 구립 어린이집이다. 변변한 어린이집이 없어 고민했던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이루기 위해 역삼동 본당이 발 벗고 나선 것이 그 출발. 개소는 지난 9월에 했지만 문을 열기까지 걸린 시간은 3~4년에 달할 정도로 공을 들인 사업이었다.

정원 71명 시설에 현재 있는 아이들은 총 43명. 학기 중간에 오픈하는 바람에 아직 아이들 숫자가 다 차지 않았지만 0세부터 2세까지는 대기자가 밀렸을 정도로 인근 주민들의 호응이 뜨겁다.

신한마리오어린이집을 이끌고 있는 오미경 원장은 사회복지학 전공자로, 미국에서 상담심리와 몬테소리 교육을 두루 거친 영유아동 보육 전문교육자로서 영아 전담, 장애아 통합, 시간 연장, 다문화 아동보육 등 취약보육을 중심으로 한 “가톨릭 정신과 취지에 걸맞은 보살핌과 교육을 위해” 헌신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우리 어린이집은 아이들의 자발성을 존중하고 자기주도 학습을 유도하는 것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앉아서 선생님을 바라만 보는 특활활동이 중심이 되면 학부모님들은 당장은 아이가 뭘 배운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아이들이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재미와 기회를 빼앗는 셈이 되기 때문이지요.”

선생님이 정해진 규칙 내에서의 아이들이 스스로 재미를 찾는 창의적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하





졌다는 의미다.

매마침 점심시간이라 아이들 방을 살짝 들여다보았다. 오늘 메뉴는 쌀밥에 아욱 된장국, 김 계란말이, 고사리 나물, 김치. 갓 만들어 김을 모락모락 피워 올리는 음식들이 먹음직스러워 보인다. 아이들의 식사를 돕는 선생님들의 조근조근한 목소리와 미소 속에서 신한마리오어린이집이 가진 특유의 따뜻한 분위기가 물씬 풍긴다. 각 반의 문 옆에 붙어있는 아이들이 신체, 언어, 감각·탐색 등 모든 영역에서 골고루 활동할 수 있도록 짜인 수업계획표도 매우 흥미롭다.

본당과 어린이집이 미래의 꿈나무를 함께 키우는 곳

신한마리오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현재 원장 포함 총 10명이다. 선생님이 7명, 조리사 1명, 보육도우미가 1명으로 모두 경력과 열정이 적절히 조화를 이룬 선생님들로 구성되어 있다.

자고 일어나면 터지는 어린이집 사고 소식에 가슴을 죄는 학부모들을 위해 안전과 위생은 오미경 원장이 가장 신경 쓰고 있는 기본 사항이다. 당연히 안전공제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아이들 식단은 연령대 영양상태를 고려해서 만들어진 보육정보센터의 식단을 받는다. 거의 날마다 신선한 재료를 이용, 바로 조리해서 바로 먹이는 걸 원칙으로 삼는데 입이 짧은 아이들도 잘 먹어 학부모들도 무척 좋아한다고.

오 원장과 한창 이야기를 나누는 와중에 이곳의 위탁운영을 맡고 있는 역삼동 본당의 박성우(요한) 주임신부가 방문했다. 검은 수단을 입고 호탕한 웃음소리와 함께 등장해 선생님들 안부를 일일이 챙기는 모습에서 신한마리오어린이집에 쏟고 있는 관심이 묻어난다.

세상에는 무수한 가치가 있지만 어린이들을 가장 우선 가치에 뒀야 한다고 생각하는 박성우

(요한) 신부에게 이곳은 “성당이 운영하는 곳이기 때문에 믿고 맡기는 학부모들을 위해 더 열심히, 마음을 다해 운영해야 하는 곳”이다. 무엇보다 어린이집 위탁운영을 통해 지역사회와 본당이 유기적인 관계를 맺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크다.

“지금 우리 사회는 일등지상주의 속에서 부와 명예를 최고의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진짜 필요한 것은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닌 옆으로 넓혀가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교회가 그 몫을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역삼동 본당은 구청행사나 지역주민들 행사가 생기면 언제든지 무상으로 본당 시설들을 다 내줍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우리만의 성당, 우리 신자만의 공동체에서 탈피해 지역민들 속에 들어가는 거지요. 함께 사는 사회 속에 역삼동 본당도 참여하면서 넓게 품으로워지는 세상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박 신부는 특히 자라나는 꿈나무들을 위한 신한마리오어린이집에 많은 정성을 쏟고 있다면서 현재 하고 있는 다양한 지원 외에도 레지오에서 직접 봉사할 계획도 세우고 있음을 밝혔다. 2014년은 신한마리오어린이집이 새롭게 도약하는 해가 될 것이다. 본격적으로 신입 유·아동을 받으면서 계획했던 누리과정, 표준보육과정과 함께 몬테소리 교육을 실시할 예정인 것. 또 외동으로 자라 상호작용이 부족한 아이들을 위해 다목적실에서 모두 함께 다양한 놀이를 할 계획도 있다. 언니, 오빠, 동생이 팀의 구성원이 된다면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익힐 수 있다는 게 오 원장의 소신이기 때문이다.

“0세부터 만 5세까지 믿고 맡겨주세요. 인성교육은 물론, 초등학교 3학년까지 지원할 수 있는 언어교육, 수학교육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작지한 귀한 존재에 대한 존중으로 가득한 신한마리오어린이집. 이 소중한 공간에서 미래의 꿈나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라기를 소망한다.✿



Mini Interview



오미경(원장)

아이를 키우는 건 적립식 펀드를 붓는 것과 같습니다. 일정하게 늘 투자해도 그 수익률은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는 등 들쭉날쭉하지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끊임없이 노력하다 보면 반드시 상향 전진을 합니다. 아이들이 바로 그런 존재이지요. 우리 어린이집은 편안한 가정집 같은 환경, 선생님들의 헌신적인 교육 마인드, 천주교 재단의 투명한 운영 등이 한데 어우러진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부모님들께 온 사랑을 다해 아이들을 잘 돌보고 교육시킬 것을 약속합니다.



오대일(요셉) 신부에게 듣는 카리타스 이야기 성탄에 담긴 참된 사랑의 의미

카리타스talk 카톡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루카 2,14)



예수님의 성탄이 여러분 모두에게 희망과 구원의 기쁜 소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특히 어렵고 힘드신 분들, 슬픔과 걱정애 짓눌리고 계신 분들에게 진정한 참 기쁨과 평화를 내려 주시길 기도합니다.

내 마음 가장 아픈 곳에서 태어나는 예수님

요즘 명동 거리를 지나다 보면 화려한 트리장식과 거리에 울려 퍼지는 아름다운 캐럴 소리에 절로 미소가 지어집니다. 그러나 아무리 외관을 트리로 아름답게 꾸며 놓았다 해도, 우리가 예수님의 육화에 대해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면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똑똑히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으리으리한 궁전이 아니라, 냄새 나는 가축들의 거처인 마구간이었습니다. 즉, 가장 비천한 장소에서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 아기 예수님께서 누우실 말구유는 가장 먼저 어디겠습니까? 그곳은 다름 아닌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는 그 누구에게도 드러내고 싶지 않은 추하고, 더러운 자리들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솔직한 사람들은 모두 인정할 것입니다. 우리들 마음 한쪽에는 나 자신도 보고 싶지 않아서 오랫동안 거적때기로 덮어버린 마구간이 있습니다. 감히 주님은 고사하고, 내가 가장 믿는 사람에게도 보여줄 수 없을 만큼 냄새나는 곳, 바로 그곳에 예수님께서 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에서 당신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 가장 아픈 곳, 바로 그곳에 아기 예수님께서 태어나십니다. 너무나 추하고 더러운 그곳이 결코 나의 역사에서 제거되어야 하는 곳이 아닙니다. 나의 약함 때문에, 그리고 타인의 불완전함 때문에, 그리고 불가피한 삶의 파편 때문에 깊이 상처받은 그 자리가 바로 아기 예수님의 첫 번째 마구간입니다.





기뻐하며 함께 나누기를 간절히 바라는 주님

다음으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또 다른 마구간은 어디일까요? 그곳은 우리의 인간 관계 안에서 내가 무시하는 사람, 내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 삶이 황폐화되는 것만 같고, 제발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바로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은 태어나십니다. 가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그 사람 또한 당신이 목숨을 바칠 만큼 존엄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달라고, 사랑받아 마땅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 달라고 애타게 호소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 당신이라고 말씀하시며 그 사람과 화해하라고 촉구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의 마구간은 우리의 일상입니다. 주님께서는 매일 똑같은 것 같고,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비전 없어 보이는 사소한 일상에서 하느님의 뜻을, 아기 예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라고, 보잘 것 없어 보이는 그 자리에서 기쁨과 의미를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자리가 모두 당신의 거처가 되며, 우리가 희망 없이 살지 말기를, 일상 속에 숨겨져 있는 작은 행복들과 가치들을 발견하고, 기뻐하며 함께 나누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만약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화려하고 흠 없는 곳, 훌륭한 곳, 그리고 모두들 부러워할 만한 곳에서 찾는다면, 우리는 결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비천하고, 눈에 띄지 않는 것, 사소한 것, 작고 연약한 것 안에 당신의 뜻을 감추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경축하는 성탄은 바로 세상이 말하는 으리으리하고 완벽한 것이 최고라는 착각에 종지부를 찍는 하느님의 선언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힘이 아닌 새로 태어난 연약한 아기의 무력함을 축하합니다. 그 무력한 아기가 세상의 구세주임을 경축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작고 보잘 것 없어 보이는, 무력하고 비천해 보이는 것들이 담고 있는 진정한 의미를 깨닫도록 초대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 성탄에 담겨져 있는 참된 사랑의 의미를 조금이나마 더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의 은총을 청합시다.✿

☞ 신부님 알려주세요!

오대일(요셉) 신부님에게 듣는 카리타스 톡 Q&A

❶ 모두가 존엄하고 사랑받아 마땅하다는 사실을 알지만, 실제로 이와 같은 마음가짐을 갖기란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모든 사람은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되었기에 존엄한 존재이고, 따라서 마땅히 사랑받아야 함을 잘 알지만, 처음부터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주변의 가족이나 가까운 이웃부터 실천해보십시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나 자신부터 사랑해야 합니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계명 안에는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는 계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❷ 성탄의 의미가 참된 사랑의 의미를 되새긴다는 의미보다 화려한 것을 쫓고, 즐기는 날로 의미가 변색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카리타스 안에서 참된 성탄의 의미를 찾는 방법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 예수님의 성탄이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가져다 준 것처럼 우리도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가져다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변의 은인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작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런 점에서 **저희 서울 가톨릭사회복지회는 매년 대림시기와 사순시기에 저금통을 통해 작은 정성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정성들이 모아졌을 때 어려운 이웃들에게는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은총을 받은 이여, 기뻐하여라”

12월 25일은 성탄절, 아기 예수의 탄생일로
하느님은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은 인간을
구원하고자 자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수태고지>는 천사 가브리엘이
나자렛 마을의 처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하느님의 아들 예수를 잉태하게 될 것이라고
전달하는 성스러운 모습을 그린 작품이다.



수태고지 [Annunciation, 受胎告知]

디에릭 보우츠(Dieric Bouts)

디에릭 보우츠(1415~1475)는 네덜란드 화가로 상징적인 제스처를 통해 강렬한 감정을 표현하는 작품이 많은데, <수태고지> 또한 마찬가지이다. 그는 작품 속에 많은 것을 그리지 않았다. 넓은 방 안에 붉은 색 커튼과 성서가 놓여 있는 책상, 책상 앞에 앉아있는 마리아, 그리고 커튼을 젖히며 마리아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천사 가브리엘이 전부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마리아가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극적인 순간을 잘 나타내고 있다. 다른 화가들이 그린 <수태고지>와는 달리 그의 작품 속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을 보지 않고 있으며, 그저 눈을 아래로 향한 채 비스듬히 앉은 상태로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그런 그녀의 행동은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한편 인간으로서의 고뇌와 긴장을 심오하게 표현하고 있다고 보인다. 반면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온화하게 다가와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습이 아닌, 손가락 하나를 세우고 경건하지만 단호한 모습으로 명을 전하고 있다. 비록 마리아와 천사 가브리엘이 눈을 마주치고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은 아니지만 그들의 침묵 속에서 극대화된 경건함과 거룩함을 느낄 수 있는 작품이다.



수태고지 [Annunciation, 受胎告知]

프라 안젤리코(Fra Angelico)

이탈리아 화가인 프라 안젤리코(1387~1455)는 도미니코 수도회의 수사이자 수도원장을 지냈으며, 종교화를 주로 그렸다. 특히 이 그림은 초기 르네상스가 이룩한 최상의 걸작 가운데 하나이며,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찾아와 아기 예수의 잉태를 알리는 것을 표현한 작품이다. 가브리엘과 성령을 따르려는 겸허한 모습의 마리아는 붉은 옷을 입고 있는데, 성화에서 파란 옷과 붉은 옷을 걸친 사람은 가장 고귀한 사람으로 표현된다. 또한 두 손을 가슴에 댄 모습은 하느님에 대한 무조건적인 복종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런 그들에게 축복을 내리듯 하느님께서 손을 뻗어 황금 빛줄기를 보내시고, 그 빛줄기와 함께 성령을 나타내는 비둘기가 건물 안에 들어와 있다. 기둥을 살펴보면 구약성서에 등장하는 예언자 이사야의 조각상이 새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사야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이사야서 7장 14절)”라고 예언했기에 작품의 주제와 연관이 있다. 한편 그림의 왼쪽에 있는 정원에 핀 흰 꽃들은 마리아의 순결, 순수를 상징하고 있으며, 자세히 살펴보면 낙원에서 추방된 아담과 하와를 볼 수 있는데, 이들을 통해 하느님의 명을 어기고 죄를 지은 인간의 모습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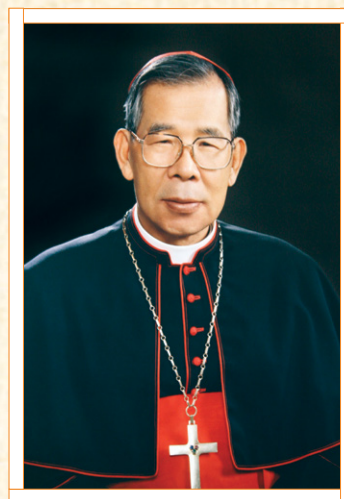


성경 속으로
[루카 복음서 1장 26~38절]

- 26 여섯째 달에 하느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래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고을로 보내시어,
- 27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 28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 29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 그리고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 30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 31 보라, 이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 32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자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이다. 주 하느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좌를 그분께 주시어,
- 33 그분께서 아담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 34 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자,
- 35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나에게 내려 오시고 자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 36 네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하였다.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여섯 달이 되었다.
- 37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 38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모든 계명의 중심, 이웃 사랑

모든 사람은 인간으로서 가치를 가지고 있기에 가난한 이들 또한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그렇기에 김수환 추기경은 항상 이웃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중요하게 여겼다. 물질적 가난뿐 아니라 정신적 결핍을 가진 모든 이웃을 향한 사랑. 그가 말하는 이웃 사랑에 대해 들어본다.



‘가난한
이들에 대한
우선적 선택’

김수환 추기경의
《영상어록》중에서

네루는
정치란 가난한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가능하다면 가난한 이들을 위한 것만이 아닌,
가난한 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마음가짐과 삶의 자세.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함께 잘 살기 위해서는
가난한 이들에 대한
우선적인 선택이 필요합니다.

‘가난한
이들과
살고
싶었는데’

《추기경 김수환 이야기》
중에서

잠시라도 가난한 사람들 속에 들어가
머문 시간은 행복했다.
성탄 전야에 산동네와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같은 곳에
기쁜 마음으로 찾아간 이유이기도 하다.
또 그들에게 보탬이 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도와주려고 노력하면서 살았다.
더구나 내가 가서 가난한 사람들 손 한번이라도 잡아주면
큰 힘이 된다고 하기에
늘 기쁜 마음으로 그런 현장을 찾아다녔다.
나 역시 그들의 꺼칠한 손을 잡아 줄 때는
내가 그들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위로받는다느 느낌이 들었다.

‘내 이웃을
버려 둘
것인가?’

《명동 대성당 사순절 특강》
중에서

“내 이웃을 버려 둘 것인가?”
이 말은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보고도 외면하고
그냥 지나쳐 버릴 것인가 하는 뜻일 것입니다.
이 문제는 결국 ‘이웃 사랑’에 대한 문제입니다.
성서적으로 보면 이웃 사랑은 하느님께 대한 사랑과 함께
계명 중에서도 가장 크고 가장 중심적인 계명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셨습니다.
이웃 사랑의 실천 없이는 하느님을 사랑할 수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친히 요한복음 13장 34~38절에서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겠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웃 사랑은 결코 여러 계명의 하나가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계명의 중심이요 완성이며 그 전부입니다.✱



사랑

온라인에서 카리타스의 향기를 함께 나누어요

김수환 추기경님이 전하는 카리타스 어록으로 사랑을 전해보세요. 온라인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 페이스북 www.facebook.com/caritasseoul ● 트위터 @caritasseoul ● 홈페이지 www.caritasseoul.or.kr/bokji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나라” 가톨릭 그리고 나눔에 관한 이야기

2013년도도 이제 한 달이 채 남지 않았다. 즐겁고 복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지만 연말의 흥겨움에 동참할 수 없는 사람들의 한숨 소리도 반비례해서 깊어진다. 체감경기가 IMF 때보다 더 낮다는 사람들의 우울함 속에서 가장 애가 타는 사람들은 바로 사회복지단체의 모금 담당자들. (재)바보의나눔의 이동원(아고보) 신부님이 이들을 위해 마련한 특강 자리에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가 다녀왔다.



유쾌 상쾌 통쾌 이동원 신부님

싱글벙글 웃는 얼굴에 커다란 덩치를 자랑하는 이동원(아고보) 신부님이 등장하자 모두들 얼굴에 함박 미소가 서린다. 마주한 이를 덩달아 즐겁게 하는 유쾌한 에너지를 뿜는 이동원 신부님이 마련한 오늘의 특강은 〈가톨릭과 나눔 이야기〉. 연말을 맞아 더 없이 바쁘지만 그 수고로움만큼 고생의 결실을 거두기가 쉽지 않은 각 복지단체 모금 담당자들이 오늘의 초대손님이다.

가톨릭교회의 시스템과 구조

가톨릭교회는 하나다. 하나인 가톨릭교회를 지역 단위로 구별할 때 그 지역교회 하나하나가 바로 교구, 즉 개별 교회가 된다. 이 교구들이 모여서 세계교회를 이루는데 교구의 최고목자는 교구장인 주교이고, 이는 교황이 임명한다. 이중 서울대교구, 대구대교구, 광주대교구의 주교는 대주교라고 부른다. 추기경은 로마교황이 선임하는 최고 고문으로서 교황청의 각 성성(聖省), 관청의 장관 등의 요직을 맡아 보며, 교황을 선출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다. 가톨릭교회의 교계는 교황-추기경-대주교-주교-신부 등으로 되어 있다고 보면 된다.

주교들은 자기 교구를 원활하게 사목하고자 교구를 여러 구역으로 나눠 자신의 협조자인 사제들에게 사목을 위임하는데 이를 가리켜 본당이라고 부른다. 본당에는 주임신부가 있고 그 아래에 주임신부를 보좌하는 보좌신부가 있다.

가톨릭교회는 속지주의다. 예를 들어 A지역 신자가 B지역으로 눌러앉다가 사망할 경우 B지역에서 그 신도를 책임져야 하는, 철저한 지역중심이라고 보면 된다.

본당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자. 본당은 크게 ‘구역’으로 나누고 그 안에서 다시 10가구 안팎으로 구성된 ‘반’이 있다. 구역의 대표는 구역장, 반의 대표는 반장이라고 부른다. 전체 구역장들을 대표로 총구역장이 있고 교회의 모든 시설을 대표하는 총회장이 있다. 주임신부-총회장-각 구역장-각 반장, 이것이 본당의 기본 틀이다. 사목위

원회는 주임신부를 보필하기 위한 단체로 주임신부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사안을 주고 참모역할을 한다.

본당에서 최고 결정권자는 주임신부 한 사람이다. 보좌신부나 수녀는 모두 주임신부를 돕는 역할을 할뿐, 결정권은 모두 주임신부에게 있다. 이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다.

본당이 생기면 부가적으로 신자들의 모임이 만들어진다. 교사회, 성가대, 레지오, 빈첸시오 등 다양한 모임 및 단체들이 생겨나는데 교회에서 도움을 얻거나 모금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이들의 도움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빈첸시오는 1833년 프랑스에서 생긴 자선조직이다. 주로 모금과 기금을 통해 활동을 하는데 독자조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 레지오 마리아는 1900년대 아일랜드에서 시작된 단체로 빈첸시오에서 분파됐다. 성모님에 대한 신심으로 몸을 움직여서 봉





사하는 단체다. 레지오의 가장 작은 단위는 본당에서 활동하는 기본 조직으로 빠르게 시디움이라 하고, 두 개 이상의 기본 조직으로 구성하는 지방 평의회를 꾸리아, 교구 단위의 평의회를 꼬미시움이라고 부른다. 신자를 동원해서 몸으로 봉사할 수 있는 모임이 바로 레지오 마리아라는 걸 잊지 말자.

가난한 본당, 하지만 길은 있다

본당의 살림에 대해서도 알아보자. 본당의 수입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① 주일헌금 ② 교무금 ③ 기타 수입이다. 교무금은 각 가정 당 편하게 낼 수 있는 금액을 스스로 책정해서 내는 돈이고 (1만 원~5만 원이 일반적이라고 한다) 기타 수입은 기부나 특별헌금을 말한다. 이외에 사회복지사업으로 쓰이는 년 4차례 특별헌금이 있는데 1월 마지막 주 해외원조주일에 내는 2차 헌금, 대림 3주 자선주

일 헌금, 5월 9월 헌미헌금, 사순저금통 등이 그것이다.

앞에서 말했다시피 본당의 살림은 늘 빠듯하다. 인건비, 제세공과금, 전기세, 수도세, 설비시설 등 들어갈 돈은 많고 나오는 구멍은 적은 탓이다. 본당에서 사회복지기금으로 쓰는 돈은 수입원의 10%다. 지원해야 할 곳은 많고 돈은 한정되어 있는 탓에 모두가 원하는 만큼 풍족하게 지원하지 못하는 점이 안타깝다.

개인 후원자들에게 집중하라

그렇다면 복지단체 모금자들은 본당 모금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본당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에 대한 사안은 반드시 주임신부의 허락이 필요하다. 복지단체가 본당과 긴밀한 관계를 맺는데 성공해도 주임신부가 임기를 마치고 떠난 뒤 새로운 주임신부가 오면 처음부터 다시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도 어려움 중 하나다.

주임신부는 늘 본당에 상주하고 있지만 만나기 어려운 분이다. 직구가 아니라 에둘러 돌아가는 길도 눈여겨봐야 한다. 다른 주임신부님을 통해서 지역 본당 주임신부님을 만나는 것도 방법이다. 네 다리만 건너면 다 연결된다는 작은 우리 사회에서 거미줄처럼 엮인 친분을 활용해보라.

모금자들은 본당 기금 후원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당 신자들의 개인적인 후원을 받는 것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본당사무실로 전화를 해서 구역장 연락처를 물어보거나 레지오 분들이 모이는 장소에 적극적으로 찾아가라. 물론 각 봉사단체

모금자들이 본당 접근이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바보의나눔’의 사무국장이자 보좌신부의 입장에서 모금자들의 그 막막함을 어찌 모르겠는가. 숨어서 낯선 이를 경계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나라 가톨릭교회의 역사를 생각해보면 일견 이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다.

봉사를 위한 후원자를 찾고 모금을 하는 일은 어렵고 힘든, 막막한 길이지만 사람들의 인식은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 훗날 사람들은 지금 고생하는 여러분들을 전설로 생각할 것이다. 포기하지 않고 상처받지 말고 열심히 그 단단한 문을 두들기고 또 두들겨 보자

모금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이동원(야고보) 신부님의 기나긴, 열정적인 강의를 끝나자 참석자들의 질문이 쏟아져 나왔다. 본당에서 운영하는 아동센터에서 일하는 참석자가 “오늘 교육을 통해 많은 이해를 하게 됐다”며 “모금 시 후원자 관리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야 하는지”를 물어오자 이동원 신부는 “모기관 연구조사에 의하면 개인후원자들에게 1년에게 7번 정도 연락이 안가면 잊혀진다고 한다. 꾸준히 연락을 취하되 연말연시 등 우편물들이 홍수로 올 때는 피하고 마음을 담아 평소에 꾸준히 연락을 해보라”라는 현실적인 조언을 해준다.

사회복지관에서 온 참석자는 “내년 모금담당자로서 고민이 많았다. 가톨릭은 다가가기 어렵다는 느낌 때문에 막막하기만 했는데 오늘 강의를 통해 어떤 방법으로 접근

해야 하는지 아웃라인이 정해진 거 같아서 고맙다”며 연거푸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기도로 강의를 마무리하고 참석자들의 열띤 사진촬영 요청으로 열심히 사진촬영을 하고 돌아선 이동원 신부에게 이런 구체적인 실무적인 강의가 왜 필요한지 이유를 물었다.

“사회복지단체에서는 가톨릭교회의 본당에 대해 자세히 모른다. 흐름을 모르고 밖에서만 바라보기 때문에 실제로 부딪혔을 때 실패를 많이 한다. 본당에 대해서 알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도 알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이번 강의를 하게 됐다.”

강의 시작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유쾌한 에너지를 전달한 이동원(야고보) 신부. 그의 에너지를 받은 모금자들이 각자의 위치로 돌아가 누구보다 열심히, 마음을 다해 목표한 성취를 꼭 이루길 바라본다.✿



마장동 성당 이종생(필립보) 사회사목분과장 맞춤형 복지사업으로 만드는 따뜻한 세상

서둘러 찾아온 매서운 추위에 몸과 마음이 절로 움츠러드는 날씨가다. 나눔을 실천하는 마음에 사계절이 따로 있을 수 없겠지만, 차가워진 날씨 때문일까? 그 의미가 더욱 크게 다가오는 듯하다. 더 현실적이고, 더 적극적인 나눔을 위해 맞춤형 복지사업을 펼치고 있는 마장동 성당. 이종생 사회사목분과장을 통해 사회사목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자.



함께하는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나눔

마장동의 지역적 특색을 꼽으라면 많은 부분이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공장 지대가 많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지역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침체되어 있고, 빈부의 격차가 큰 편이며, 빈곤층과 저소득 계층이 전체 주민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종생 사회사목분과장은 신자 수에 비해 나눔을 실천해야 할 대상이 많다는 점에 착안하여 지역 내에 위치한 네 개 복지시설단체, 주민센터 등과 정보공유 협의체를 구성했다. 마장동 성당에서 실천하는 나눔과 사랑이 반드시 필요한 곳에 쓰이기를 바랐고, 전문성을 갖추어 사

회사목대상자들의 상황에 빠르고 정확히 대응하기 위해서이다.

“관내에 위치한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등록단체인 성동노인종합복지관, 성동종합사회복지관을 비롯하여, 대한적십자사 및 성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과 사회사목활동을 접목 연계하여 실천하는 방향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본당 외 사회복지 단체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나눔을 실천하다 보니 대상별, 연령별로 변화하고 발전하는 다양한 복지정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었죠. 또한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대상자를 파악하게 되었고, 그들을 선정하는 일도 서로 긴밀하게 협의할 수 있었습니다.”

마장동 사회사목분과는 이처럼 본당 안팎의 교류를 통하여 나눔 대상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 대책을 구상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수급대상에서 제외된 어려운 이웃에게도 따뜻한 온정을 나눌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등 현실에 맞는 나눔을 실천하는 효과로 나타나고 있다.

8지구를 물들이는 나눔의 물결

마장동 성당 사회사목분과의 활동은 카리타스 정신을 실천하는 데서 시작됐지만, ‘나눔’이라는 하나의 키워드로 지역사회를 아우르고, 신자와 비신자의 경계를 허물며 나눔을 실천하고 함께하는 세상을 만들어 간다는 데 더 큰 의의가 있다.

또 다른 의미로 보자면 본당과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에 등록된 사회복지단체가 소통하며,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향한 나눔의 실천을 긴밀한 공조로 지역사회까지 확대해 나갔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마장동 성당 사회사목분과는 빈첸시오회와 나눔의 묵상회가 관내·외를 발로 뛰며 적극적인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도 신부님의 적극적인 지원과 뒷받침이 없었다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겠지요. 이 모두가 교구에서 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신 결과로 믿습니다.”

마장동 성당의 사회사목활동은 8지구(성동구, 광진구)에서도 모범적인 사례로 꼽힌다. 현재 8지구는 사회사목분과장 협의회를 발족하여 13개소의 사회사목분과장과 사회복지단체장이 나눔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을 나누는 합동연석회의를 지속해서 개최하고 있다. 물론 지역마다 주어진 여건과 허락된 시간이 다르기에 현실적으로 겪는 어려움은 다양하지만, 나눔 실천하는 마음은 다르지 않을 것이다.

나눔은 ‘사랑의 실천’이다. 마장동 성당에서 실천하는 사랑이 성당을 넘어 지역 전 구성원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으로 자리하기를, 그리고 더 너른 파장으로 울려 퍼지기를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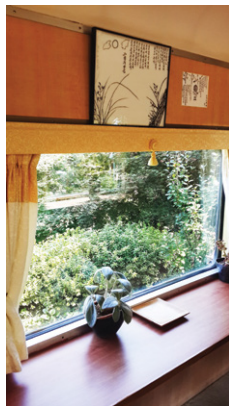
나눔을 실천하시는 분들. 지붕수리 및 도배작업.

마장동 성당

마장동 성당은 교세 확장 및 지역적 특성으로 왕십리 성당과 분리, 1992년 4월 29일 사근동 공소 설립 승낙을 받아 1992년 11월 15일 사근동 공소 개설 현판식과 첫 미사 봉헌식(故 金勝勳, 마티아 신부)을 거행함으로써 창설되었다. 그 이듬해인 1993년 12월 12일, 인근 마장동 소재 현대자동차 창고를 개조하여 공소를 이전하여 오늘날의 마장동 성당이 시작된다. 당시 초대 사목회장인 故 조기선(曹基先, 디모테오)을 비롯한 평신도 사목협의회가 조직 구성됨으로써 사근동 전체, 행당동 및 마장동 일부 지역을 기반으로 신앙 공동체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당신과 함께 만들어 가는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등록단체 소식 오늘은 어떤 일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인간 존중의 정신으로 지역주민과 더불어 행복한 지역사회 공동체를 만들어 가자는 의의를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는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등록단체. 가족들과 함께하는 좋은 소식과 행사를 소개합니다.



과거의 모습



현재의 모습



<은평의마을>

열차카페의 아름다운 변신

<은평의마을> 열차카페가 많은 자원봉사자들과 직원들의 후원금, 작업 돕기 등으로 힘을 모아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을 했습니다. 지난 10월 21일을 시작으로 11월 19일까지 20일간 진행된 공사는 내부공사와 도색 작업 위주로 이뤄졌으며, 20일에는 축성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열차카페가 <은평의마을>의 편안한 휴식처이자 따뜻한 공간이기를 기대합니다.

<은평의마을>은 은혜롭고 평화로운 마을이라는 뜻으로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가 서울시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성인남성 노숙인의 생활시설입니다. 생활인의 거주보호, 가족 찾아주기, 사회복귀를 위한 직업 재활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홈페이지: www.eunpyong.or.kr • 문의: 02)3156-6300

<동작노인종합복지관>

제11회 동작어르신 공연발표회

<동작노인종합복지관>은 지난 11월 6일 동작문화복지센터에서 '제11회 동작어르신 공연발표회'를 열었습니다. 어르신들은 이번 발표회를 위해 약 1년 동안 실력을 갈고 닦으며 공연에 대한 열정을 보였으며, 이를 통해 성취감과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스포츠탄스부터 에어로빅, 합창, 한국무용, 우리춤체조, 하모니카동아리, 수화노래교실, 데이케어센터, 재가복지사업팀 등 총 9개의 팀이 참가해 다양한 무대가 구성되었으며 경품추천, 축하공연 등으로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축제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동작노인종합복지관>은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에서 위탁운영하는 노인복지전문기관입니다. 지역어르신들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돕기 위해 자원봉사 육성사업, 사회교육사업, 경로당 활성화사업, 재가노인 복지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홈페이지: www.djsw.or.kr • 문의: 02)823-0064



<고양시보육정보센터>

제5회 모여라! 아빠 육아골든벨

<고양시보육정보센터>는 지난 11월 9일 고양시 영유아 자녀를 둔 아빠들을 대상으로 '제5회 모여라! 아빠 육아골든벨' 대회를 개최해 고양시 내 아빠들이 한자리에 모여 육아에 대한 문제를 풀며 아빠의 양육 참여 및 가족 간의 화합을 도모하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고양시 관내 어린이집의 축하공연으로 시작된 이번 행사는 아빠 육아골든벨 문제풀이, 패자부활전, 어린이 치어댄스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고양시보육정보센터>는 2003년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와 위탁운영 협약체결을 맺고 고양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유아, 부모, 보육관련 종사자들을 위해 보육에 관한 정보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 홈페이지: www.echild.or.kr • 문의: 031)975-3314



카리타스 실천에 한걸음 더 가까이

자원봉사활동이 더 가치 있고 보람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 서울카리타스자원봉사센터에서는 나눔을 더 가치 있게 만드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중 자원봉사 기본교육 강사양성교육은 가톨릭 신자이며, 예비 자원 봉사자인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봉사활동에 임해야 할지를 제시하는 가슴 속 나침반과 같다.

자원봉사를 마주하는 울퉁은 마음을 심다 자원봉사 기본교육과 강사양성교육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서울카리타스자원봉사센터에서는 ‘자원봉사자 양성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공동체 구현’의 미션을 수행하고자 교육 및 인력양성에 중점을 두고 자원봉사를 활성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예비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기본교육을 하고 있으며, 교육내용은 자원봉사의 기본정신과 바람직한 역할 및 자세를 제시하고, 자원봉사자의 재능을 활동과 연계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내용이다. 이처럼 점차 다양해지는 교육생들의 수요에 발맞추기 위해 자원봉사 기본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강사양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강

사양성교육은 1단계 자원봉사 이론을 습득하고, 2단계 자원봉사와 관련한 토론을 통해 자원봉사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돕고, 3단계 강의훈련을 통해 강사가 지녀야 할 자질을 향상하는 일련의 교육과정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강사를 양성, 배출하는 과정이다. 교육을 모두 이수한 뒤에는 강사심의평가를 통해 강사자격을 수여하고, 서울카리타스자원봉사센터의 자원봉사 기본교육 강사로 활동하게 된다.

● 서울카리타스자원봉사센터
https://www.esvc.or.kr Tel. 02)727-2235, 2248

인생의 또 다른 시작을 실천으로 시작하는 아름다운 혼인, 하나 되는 나눔

인자하신 하느님 아버지,

혼인성사로 저희를 맺어 주시고

보살펴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이제 저희가 혼인 서약을 되새기며 청하오니

저희 부부가 그 서약을 따라

즐거울 때나, 잘살 때나 못살 때나

성할 때나 아플 때나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며 신의를 지키게 하소서.

또 청하오니, 언제나 주님을 찬미하는 저희 부부의 삶이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성사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혼인나눔 신청서

신랑()과/와 신부()는/은
사랑의 공동체인 가정에
은총과 축복을 주시는 하느님과
혼인을 주례하시는 신부님,
혼인성사에 초대된 모든 하객들 앞에서
결혼 축의금 일부를 기부할 것을 약속합니다.

나눔 신청자 년 월 일
(인) (인)

이름	세례명	교회본당
신랑		
신부		
주소	혼인성사 일자	
연락처		
e-mail		
소정의 원마디		

본 결재인 장에 기부금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한 천문 복지사업에 사용됩니다.

결실분야
☐ 아동/청소년 ☐ 장애인 ☐ 학생 ☐ 청소년 ☐ 노인 ☐ 의료 ☐ 기타 ()

문의 | 전 화 02-776-8810
팩 스 02-754-5838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의 출발에 어려운 이웃과 함께 사랑을 나누어 보 세요. 가나 혼인잔치의 영광과 기쁨이 새로운 인생의 출발을 앞둔 두 분과 함께할 것입니다. 혼인 나눔은 혼인성사를 통하여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혼인나눔 참여방법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자원개발팀(727-2437)으로 연락
→ 자세한 상담 → 나눔 신청서 작성

참여 시

- 청첩장 혼인나눔 안내문구 및 로고 지원
- 식 당일 혼인나눔 안내배너 지원
- 감사선물 증정
- 기념일 축하카드 발송
- 기부금 영수증 발급



Mini Interview

자원봉사 기본교육

강사 이경현(효임골품바)

Q 자원봉사 기본교육이 꼭 필요한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A 자원봉사는 언제, 어디서,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왜, 어떻게, 누구를 위해서 해야 하는지 바르게 알고 있는 이가 많지 않습니다. 이를 명확히 한다면 그 효율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최근 봉사자들 스스로 기본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자각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Q 다른 곳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 가톨릭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의 가장 큰 차이점을 들자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A 우리가 가톨릭 신자로서 자원봉사를 해야 하는 이유, 이웃을 위해 나눔을 실천해야 하는 이유 등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교육은 이처럼 두루뭉수리 하게 알고 있는 것을 명확히 해 가슴 안에 심자기를 하나 새기게 하는 과정이며, 이것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

Q 자원봉사자 기본교육의 활성화가 가장 시급한 문제로 여겨집니다만...

A 본당을 중심으로 나눔의 실천이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리려면 교회가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교육을 진행하는 강사들도 자원봉사자들이 찾아오는 교육에서 그치지 않고, 직접 찾아가는 교육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을 만날 수 있도록 바뀌는 중입니다. 교육을 받았던 분들의 지속적인 활동, 본당 신부님들의 적극적인 지지 또한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저는 강의할 때마다 자발성, 이타성, 무보수성, 지속성을 강조하곤 하는데 지금의 내가 생활 속에서 이 네 가치를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지 돌아봐 주시기 바라고, 많은 분이 자원봉사 기본교육에 꼭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카툰. 안홍준

카리타스 가족을 소개합니다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에 후원금과 물품지원으로 도움을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실천하신 카리타스는 누군가의 가슴 속에 깊게 뿌리내린 사랑의 나무가 되어

이 사회 곳곳에 아름다운 희망의 열매로 열릴 것임을 믿습니다.

다시 한 번 여러분의 따뜻한 나눔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후원금	고승환	권해원	김재자	김수경	김유현	김정희	김현아	노승근
(신)강남아구찜	고애자	권호순	김명년 김남수 엘리	김수덕	김윤수	김정희	김한정	노연숙
(주)디앤드디테크	고영주	권희숙	지베시	김수연	김윤수	김정희	김한정	노영철 김애옥 제
(주)르노삼성자동차	고용임	그랑데뷰	김영란	김수영	김윤정	김제기	김현조	노베파
(주)화광산업	고원실	그랑프티 안경	김영식	김수정	김윤주	김조자	김현희	노완수
가자아트로	고윤애	그리마트	김영애	김수정	김윤지	김종규	김형국	노은자
가족모임(GA)	고은경	그집칼국수	김영주	김수정	김윤진	김종수	김형남	노인숙
갈매기 봉 식당	고재용	금강화점	김영희	김수현(김효정)	김윤희	김종순	김형숙	노주영
강기네 순대국	고창숙	금정래(안정우다윗)	김용수	김숙자	김윤희	김종애	김형준	노진호
강경희	고향갈비	기광서	김문자	김순심	김윤희	김종애	김형진	노현아
강귀숙(김민진)	고혜숙	기문산	김미경	김순이	김은경	김종옥	김혜경	노혜경
강금옥	고혜향	기세용	김미경	김순임	김은경	김종희	김혜리(김재인)	노혜원
강명숙	고효영	기아저동채(주)	김미경	김순자	김은록(천용기바오로)	김준남	김혜영	녹색개발
강문채	공매리내당구클럽	기인간	김미연	김순자	김은숙	김주순	김혜원	다담 장식
김미란	박내원(박유진미키엘라)	김수현	김미옥	김순국	김은자	김주철	김혜원	단바
김미원	박도희	김갑산	김마음	김순혜(신애숙 로	김은경	김준기	김혜진	단체영
김미자	박선영	김경	김미정(김관태)	사리아	김은현	김중섭	김호영	달 하나미리
김민석	박안나(이희원 그레	김경석	김미혜	김시욱	김은태	김지니	김홍승	대가 김자탕
강범구	고리오	김갑수	김미혜	김재경	김민경	김지애	김하순	대가 주아탕
강병권	곽철	김경숙	김미현	김양희	김민국	김지영(임준형)	김화순(최대웅 비오)	대우약국
강보민	교촌치킨	김경숙	김미형	김여정	김민숙	김지은	김화순(최양규테니스오)	대치2동성당
강석기	구강희	김경숙	김미혜	김연이	김민숙	김지현	김화자	도재민
강성숙	구룡약국	김경숙	김민선	김연주	김민숙	김지현	김화자	도호경
강수선	구미회	김경순	김복순	김연중	김민숙	김지혜	김황윤(심월재)	동영모바일
강신정	구백서	김경우	김봉기	김영경	김민숙	김지환	김효경	두까비부대찌개
강씨네	구선영	김계명	김봉채	김영구	김민자	김진권	김효숙	트래유름
강연아	구은순	김광수	김삼옥	김영란	김민희	김진순	김효숙	두부마을
강영석	구은정	김광재	김삼미	김영률(김태윤 루치오)	김재현	김진영	김효진	둘레나들이
강영숙	구은화	김광재	김상민	김영배	김재범	김진우	김홍준	디오니스
강용화	구정연	김광희	김상숙	김영삼	김재삼한의원	김진우	김희경	라우영
강윤진	구학진(조정자)	김국원	김상훈	김영진(소숙경 소피아)	김재정	김진택	김희성	로데오약국
강인구	국영수	김구남	김상별	김영숙	김재준	김진택(김하늘)	김학숙	롯데마트
강재순	국모남약국	김구준	김석구	김영숙	김재희	김진태(송행숙)	김희숙	루디아
강정두	권경희	김금순	김선경	김영숙	김재숙	김희호	김희순	류기연
강정석	권구중	김금순 리더아	김선미	김영숙	김재남	김진홍	김희영	류영숙
강정은	권기성	김기식	김선여	김영숙	김재민	김진후	김희정	류상현
강정현	권덕일	김기수	김선영	김영순	김재민	김철순	김희정	류일형
강주영	권미영	김길동	김선영	김영순	김재미	김철환	김희정(이효진 바오로)	류주희
강준호	권병길	김나영	김선자	김영순	김장수	김정	김희준	마경란
강지영	권병란	김남권	김선자	김영순	김장수	김창나	김희진	마금란
강지혜	권병순	김남용	김선자	김영순	김정숙	김태백	김희진	마산아구찜꽃게탕
강진석	권선형	김남호	김선정(최성현)	김영옥	김정숙(김정은대래사)	김태연	김희진	마성훈
강진화	권성경	김노은	김선준	김영옥	김정아	김태연	김희진	마준기
강한나	권세희	김대운	김선진	김영은	김정아	김태영	김희진	맬시나 블랙션
강현경	권소현	김대운	김선창	김영임	김정아	김태은	김희진	맹희정
강현식	권수영	김대철	김선화	김영자	김정연	김태현	김희진	맹기아구찜
강혜경	권수정	김덕기	김선희	김영자	김정옥	김태훈	김희정	맹동주
강혜경(이동준)	권수현	김덕산	김성구	김영자	김정현	김태훈	김희정	맹성 삼천리자전거
강해선	권영민	김덕선	김성미	김영철	김정현	김택준	김희정	맹지서정
강희경	권영신	김덕선	김성민	김영희	김정현	김택준	김희정	맹



문영주(문영숙)	박신자(이영찬)	배경옥	선현경	신현숙	역촌골민속주점	유미애	이갑중	이상명
문정원(문지나)	박애자	배경희	선희경	신현옥	연	유민옥	이강태(김옥재)	이상봉
문정운	박연희	배기원	성근태	신현주	연제숙	유봉상	이강표	이상웅
문정혁	박연희	배상옥	성경순	신현준	염경숙	유상열	이경	이상원
문홍숙	박영순	배성일	성남정형외과의원	신혜란	염시중	유상훈	이경남	이상직
미성식당	박영애	배소현	성남할인슈퍼	신홍원	염태주	유신타	이경숙	이상철
미오미장원	박영이	배수현	성대골	심규련	영남중공업	유순근	이경순	이상협
민경숙	박영자	배윤주	성문옥	심규태	영천소프트웨어(주)	유순덕	이경순	이서희
민경준	박영제	배은주	성민재	심동훈	예담	유아름	이경옥	이석(이원준 라파엘)
민기준	박영희	배은주	성봉순	심석중	예빈 미용실	유양숙(박영우)	이경은	이석현
민명숙	박용구	배정숙	성봉순	심순복	예빈관	유연자 미용실	이경자	이석훈(이우정빨라땃다)
민병용	박용덕	배준학	성양자	심영심	예혜회	유영애	이경자	이신아
민세진	박용덕	배진	성우연	심재은(이승옥요한)	오건희	유영춘(권순범프란)	이경자	이선영
민수떡집	박용영(오영란부부)	배진영(신정훈)	성은정	심지원	오경자	체스코	이경재(주수도 베드로)	이선영
민시원	박용철	배현	성정희	심현숙	오남주	유옥상(유수빈 글라라)	이경혜(김승수)	이선경
민윤봉	박원철(나은주)	백선식	성진영	심혜자	오대희	유옥상(유수현라우)	이경호	이선옥
민중분	박유경	백성화	성진희(방정홍)	아이러브파플	오리마을	렌시아)	이경화	이선희
민해경	박유행	백승민	성필란	아이러브파플	오범수	유윤순	이계균	이선희
박강준	박윤경	백승현	세양수산	아이렉스 안경	오부연	유은경	이계숙	이성근
박건호	박은선	백인왕순대	세진화(생주)	안광인	오산하	유은희	이계현	이성룡
박경수	박은숙	백영식	소년가장뜰기	안국진	오사운	유일씨엔티	이고운	이성명
박경애	박은영	백영임	손경진	안덕인	오세준	유정옥	이광미	이성원
박경은	박은주	백은영	손금옥	안명옥	오숙자	유지숙	이광자	이성훈
박경희	박은주(박경진)	백진학	손금자	안상현	오순희	유진	이광재	이세진
박광원	박은희	백홍렬	손말남	안석지	오송희	유진떡집	이광정	이세진
박광임	박인숙	백화숙	손미애	안성수	오연숙	유진영	이광희	이소연
박구희	박인호	법무법인태운	손인선	안성식	오영숙	유진해물	이교선	이소영
박근석	박정선	변기섭	손지연	안세정	오윤선	유태중	이규호	이송연
박금선	박정순	변성안	손지원	안수연	오인화	유해연	이규하(김영석)	이수길
박금자	박정순	변순복	손철	안수정	오재숙	유호경	이근진	이수연
박금자	박정순	변춘자	송광호	안순옥	오주경	유호선	이기명	이수진
박나래	박정익	변해인	송기창	안연숙	오준환	윤경숙	이기목	이수현
박나정	박정인	변호사 박경재 법률특허	송명송	안영숙	오지선	윤광선	이기주	이숙아(안재혁)
박덕순(박화정)	박종익	변희자	송미용	안윤주	오진선	윤매전	이기현	이숙아(임영기 라파엘)
박도담	박종필	병천순대 종가집 왕족발	송밖음	안인숙	오천석	윤경숙	이기화	이숙자(이범석)
박동수	박주현	보노스탈주식회사	송승임	안정란(차광옥)	오현수현우	윤경자	이나미	이승근
박동욱	박주현	보탈갤러리	송순자	안정희	오한인	윤미나	이나은	이소덕
박마리아	박준우	북기구	송영옥	안준희	오형수	윤병훈	이난희	이순복
박마리아(차동환)	박준순	분기풍년집정육식당	송원철	안준원	오형자	윤복희	이남희	이순임
박명순	박지남	봉정우	송은경	안향화	오혜선(주송택바드	윤사영	이동균	이순주
박미경	박지민	북경	송은선	안철용	시리오)	윤석균	이동수	이순주
박미경	박진숙	빈첼원	송은지	안학정	오혜정	윤석현(윤태연 스	이동원	이순희
박미숙	박진석	사랑의 치과	송재수	안형숙	오혜진	테피노)	이동윤	이순아(이공원 루가)
박민정	박찬조	사회사목화장단	송주연	안혜원(한정우안토니오)	온경주	윤선우	이동주	이승현
박민철	박찬희	상지현	송주은	안희경	와-우리장작구이	윤소연	이동중	이신우
박병욱	박창엽	생타공인중개사	송지성	안희중	왕정환	윤소연	이이린	이정숙
박보나	박철완	서경자	송창권	악순악국	요셉(비인후과)	윤송경	이두규	이이연
박복래	박정환	서경희	송치호	안하우스	용두동꾸꾸미전문점	윤여경	이두환	이안신
박비아	박준환	서광식	송해정	양건호	용상목	윤영란	이로운	이애경
박상경	박준희	서대문 야구팀	수궁동빈첼시오	양길순	우가인	윤영란(박진영)	이룩한	이양순
박상문	박태원	서란	수성밸브공업	양린다	우리생막걸	윤영미	이명국	이양희
박상봉	박학봉	서명숙	수진골프존	양명숙	우상희	윤영미	이명리	이연희
박상순	박한순(임병모토마스)	서명애	순동오리	양명희	우성꽃집	윤영현	이명식	이영란
박상진	박해숙	서민영	스누피	양미(정예원)	우종건	윤옥순	이명숙	이영석
박상희	박행자	서병기	신경남	양승서	원당어린아집	윤옥이	이명숙	이영숙
박새라	박혁기	서애라	신경숙	양영식	원명수	윤용섭	이명순	이영숙
박사혜	박현정	서예술	신경훈	양인옥	원순희	윤운선	이명옥	이영숙
박선미	박혜숙(권기영)	서오농물닭	신대균	양일형	원신연	윤정익	이명옥	이영아
박선아	박혜신	서울피혁	신동천	양자선	원은숙	윤종구	이명화	이영애
박선영	박혜영	서원아	신범수	양정숙	원일정육점	윤종현	이명희	이영희
박선희	박혜영	서유나	신삼	양지보신탕	원종숙	윤종호	이무석	이영옥
박성수	박홍구	서은숙	신상철	양지영	원해성	윤지희	이문은	이영은
박성호전세림	박홍규	서은희	신상훈	양현석	원희준(남기 현)	윤태영	이미경	이영자
박성희	박홍달	서일순대국	신상에	양혜경	웹컴크레디라인대부주)	윤하정	이미숙	이영주
박성희	박희영	서정성	신수진	어윤석	위광희	윤한섭	이미숙	이영주
박소연	박재식	서정애	신소옥	어경자	위드자이나	윤재수	이미현(최윤정 아네스)	이영후
박소영	반포마차	서정희	신연식	엄기숙	위수경	윤해련	이미화	이영희(김정문 라
박소현	밝은아침한의원	서용연	신영자	엄미라	유경숙	윤해영	이민기	파엘라)
박수남	방성요	서흥현	신원	엄진섭	유경숙	윤해정	이민우	이예민
박순미	방원빈	석병남	신은령	엄숙경	유경원	윤화숙(최덕준)	이민정	이옥자
박순옥	방원석	석정광	신인숙	엄순식	유경원	윤화경	이민정	이옥자
박순옥(임종영)	방지경	석해정	신재승	엄재순	유관희	은영기	이범규(이디안)	이종수
박시범	방홍원	선덕남	신창균	여러분정육점	유기열	이기떡방	이범용	이종원
박시우	방효분	선막동	신재연	여은구	유리나	이기화	이상근	이종현
박시하	방효연	선진상회	신현강	역달달한미리	유미숙	이갑동	이상림(전대환)	이종호



이우선	이종현	임성숙	전명순	정재선	조대식	최영홍	한미음(오리숯불구이)	홍문희
이우재	이주아	임성연	전명애	정재철	조현화	최영희	한명숙	홍성주
이우규	이정규	임성택(마성희 아	전명은	정재호	조희운	최영희	한영희	홍성숙
이원왕	이주형 이지혜	드리애	전미현	정정아	조희재	최영희	한모기(술(주)	홍성일
이원준	이준영	임소영(전윤오니콜라오)	전병선	정주영	조혜경	최영희	한방피부관리	홍성일
이원평	이준혁	임소택	전상목	정지홍	주호미(인타내셔널	최옥순	한상두	홍순숙
이원희	이준희	임연진	전상배	정진모	주가내	최옥희	한상국	홍순준
이유나	이준희	임영수	전수정	정진실	주영화	최용순	한상국	홍영준
이유상	이중범	임영혜(김만일)	전수진(오옥진)	정진희	주선형	최우현(정혜경 비	한선형	홍은석
이유정	이중희	임유연	전숙현	정찬영	(우우리은행	비안나)	한성현	홍은영
이유진	이중상	임유정	전연경	정찬익	주일민	최원길	한성희	홍은혜
이유진	이지별	임유석	전정임	정찬중	주춘자	최원영	한소희	홍재모
이유희	이지영	임의자	전종석	정재호	주해숙	최원희	한솔도시락	홍재범
이윤수	이지은	임이순	전진경	정철동	주한정	최유정	한숙분	홍제동분당사무실
이윤우(신예찬)	이지후	임재수	전진미	정철현	주화순	최윤기	한수지	홍제동분당휴게실
이윤정	이진기(강인성 발	임재진	정정희와과	정철호	주희숙	최윤동	한수석	홍중숙
이윤희	렌티노)	임정수	정준옥	정준호	지민호	최윤지	한아름	홍중숙(박은진 엘
이은경	이진섭	임정실	정광숙	정홍자	지미심	최은규	한연희	리시벳)
이은숙	이진숙	임정연	정국진	정철성	지민규	최은진	한연희	홍주영
이은숙	이진울	임정은	정규일	정대옥	지민준	최인복	한영미	홍지혜
이은순	이찬주	임정은	정국모	정태현	지서민	최재현	한영민	홍현정
이은영	이창길	임정희	정기봉	정하진	지은이	최재훈	한영철(정영애)	황생당 한의원
이은영	이창민	임종국	정기성	정점순	진경란	최정순	한유경	황다연
이은인	이창석	임종현	정남숙	정한중	진능호	최정수	한유미	황명선
이은자	이창현	임지연	임지연	정해진	진명실(정재민 다니엘)	최정숙	한유선	황미라
이은정	이창현(이상은 아네스)	임진우	정동진	정현태	진보라	최정심	한인숙	황민옥
이은지	이창호	임해순	정동진수산	정해원(이다니엘)	진수근	최정호	한장희	황민재
이은혜	이재정	임학진	정동태	정효진	진영문	최정태	한재관	황빈(황지현)
이은화	이창우	임현숙	정말순	정희선	진장복	최종규	한재희	황보숙
이은희	이춘배	임현정	정맹신	정희은	진장란	최지연	한정혜	황보진아
이은미	이춘영(정훈)	임현주	정명진	정희철	차영순	최지영	한지현	황상진
이은희	이창자	임형빈	정마숙	제중원약국	차영철	최진규(최세훈베드로)	한진이(에스앤(주)	황상국
이은소	이춘희	임혜경	정미자	조경(김은민 마리아)	차한미	최창욱	한창섭	황성희
이일수	이훈현	임호순	정민영	조경(김현경 마카엘라)	채사병	최철원	한창현	황인민
이일용	이탈리아치킨	임화남	정병선	조계자	채사신	최준규	한혜영	황영자
이장	이태리안점점	장경수	정상규	조광성회	채정숙	최한숙	한혜정	황유숙
이장선	이태순	장경일	정상래	조광현	채현주	최현경	할머니해장국	황유숙
이재근(임향진)	이태순	장금주	정성원	조금숙	채해연	최해경	함금호	황인주
이재만	이태연	장로사	정세라	조금순	채대필	최해란	함영업	황진경
이재원	이태호	장말순	정수경	조기인(송욱기)	천일숙	최해순	함윤희	황현성
이재은	이한주	장명환	정숙철	조농진	천재옥	최화수	함정인(유동훈 베드로)	황현숙
이재은	이현경	장미령	정숙필	조명선	천지연(양미숙)	최환주	함세우치킨	황혜정
이재진	이현수	장미정육점	정순아	조명자	천화금	코넬	해피빈!	BYINYONGHO
이재희(윤준식 안	이현숙	장민정	정순영(정종석)	조미정	청계산장수촌	코코떡볶기	햇빛자리부모회	CELINE
토니오)	이현정	장복남	정순재	조민영	최광문	크린세탁소	허동환	CHELSEA
이정남	이현주	장상호	정애순	최경아	최경아	탁성훈	허미숙	DO 마트
이정남	이현진	장선영	정암순	최나영	최나영	태양약국	허삼근	PIAO SHU
이정민	이현호	장성혜(임갑표)	정여경	조선휘(김재일 바오로)	최덕자	통삼검구이 3,900원	허영수	
이정미	이혜경	장수영	조성원	최동은	최동은	투다리서오정	허예란	
이정아	이혜용	장순연	조성윤	최득실	최득실	트레이드맨	허은경	2. 후원물
이정옥	이홍	장시영	조성지	최희애	최희애	파리버게트	허지은	성창제화
이정원	이홍근	장목화(이상진)	조성진	최미경	최미경	필스캔 생활과학	허정화(인젤라	공연타인즈
이정원	이홍근	장원영	조성필	최미숙	최미숙	평화기업사	허지선	다쏘니
이정은	이화정	장원숙	조성훈	최민	최민	포개춘담한마리	허진	이브자리
이정은	이화파부성형	장원희	조세원	최민해	최민해	표명애(표정하)	헤어덕터	다인랩
이정은	이효상	장재진	조수선	최범수	최범수	표미자	현대자동차	
이정자	이희	장재표	조순식	최범진	최범진	표윤수	현대자동차부품	
이정진	이희옥	장재현	조순자	최병국	최병국	표화순	현동국	
이정태	익명	장정호	조순희	최병기	최병기	푸른문구서점	현상수	
이정호	익명	장지현	조애경	최상원	최상원	풍년상회	현은정	
이정환	인경환	장철진	조영관	최서환	최서환	피자스쿨	현혜정(박현태 그레	
이정희	인왕떡집	장희소필	조영훈	최세민	최세민	하늘땅물벗	그리드)	
이재복	임경은	장하윤	조영국	최선호	최선호	하미용(이동현)	형제상회	
이재만	임광재	장한나	조원준	최상민	최상민	하승훈	호성회	
이재후	임광범	장현진	조은별	최성용	최성용	홍강훈	하정숙	
이준분	임미령	장희은	조은연	최성자	최성자	하지영	홍금숙	
이준선	임민지	장희부	조인수	최성희	최성희	하철환	홍기욱	
이준원	임미경(김영선 요셉)	장희소	조인숙	최소영	최소영	하태윤	홍길자	
이준원	임미경	장희은	조일형	최숙희	최숙희	한경란	홍나영	
이준선	임민지	장희부	조재현	최순임	최순임	한경희	홍나영(김민규 베드로)	
이준원	임영기	장희상	조정숙	최순주	최순주	한관수	홍나영(김수연 스텔라)	
이준원	임성문	전대영	조지연	최한숙	최한숙	한관표	홍나영(김희선 마태오)	
이준찬	임성주	전대주	조진기	최한우	최한우	한관표	홍덕의	
이준표	임성숙	전명석(최상근)	조진숙	최영자	최영자	한미음생선	홍만길(김문숙)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Facebook과 함께하세요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는 새로운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고 여러분들과 SNS를 이용하여 마음을 나누고자 페이스북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각종 공지 및 이벤트를 알려드리고, 의견 등을 주고받는 등, 소통의 폭을 넓힐 예정입니다.

Facebook 이용자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주소: <http://www.facebook.com/caritasseoul>
- 문의: 교육·홍보팀 02)727-2256

소식지 온라인 구독 및 온라인 독자퀴즈 참여 안내

본 <나눔> 소식지는 온라인 구독 및 온라인 독자퀴즈 참여가 가능합니다. 착한 이야기, 재미있는 이야기가 가득한 소식지를 온라인에서 받아보시려면 검색창에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를 입력해 주세요.

소식지



CS생명존중문화만들기 업무 협약식 및 자문위원 위촉식

공동체 의식의 함양과 인간의 존엄성 회복, 생명 존중문화 확산을 위해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한마음한몸자살예방센터, 등촌7종합사회복지관, 동작종합사회복지관, 상계종합사회복지관, 유락종합사회복지관, 한빛종합사회복지관은 'CS생명존중문화만들기' 업무 협약식 및 자문위원 위촉식을 진행하였습니다. 지난 10월 15일(화) 18:00에 가톨릭회관 112호에서 진행된 본 행사를 통해 생명존중 전문성을 향상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사회 내 생명존중 문화 형성에 기여하며, 매뉴얼 개발 등 다양한 활동을 상호 간 적극적으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CS생명존중문화 만들기 슬로건·BI 공모전 개최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는 『지역사회 중심의 CS생명존중문화 만들기』 사업에 사용될 슬로건·BI 공모전을 실시하였습니다. 접수기간은 8월 12일(월)~23일(금)이었으며 다수의 작품이 접수되었습니다. 심사를 통하여 슬로건은 23점, BI는 8점이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수상자분들께 축하드리고, 관심 가져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생명존중문화만들기
- BI 대상(김효정)

“가슴 속에 인간 존엄, 생활 속에 생명존중”

- 슬로건 대상(정광성)

제10회 김장·쌀 나눔 행사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에서는 올겨울에도 NH농협카드사, 빈첸시오회와 함께 서울대교구 각 본당 내 무의탁 어르신, 소년소녀가정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과 쌀과 김치를 나누었습니다. 12월 1일(일) 08:00부터 시작된 김장은 서울지역 내 각 본당에서 오신 500여 명의 자원봉사자분들과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실천한 사랑이 이웃들에게는 따뜻함이 되어 전달되었습니다. 본 행사에 보여주신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나눔의 묵상회 피정 참가자 모집

1985년故 김수환 추기경님의 제언으로 시작된 나눔의 묵상회 피정은 ‘나눔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한국인의 심성에 맞는 교육’으로 자신에 관한 성찰과 나눔의 가치를 통하여 행복의 길로 인도하는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의 영성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이웃(특히 소외되고 어려운)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 문의: 교육·홍보팀 02)727-2547

동절기 노숙인 야간순회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는 노숙인들에게 관심과 보살핌을 기울이고, 이를 통하여 그들의 존엄성을 존중하고자 동절기 노숙인 야간순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추위로 인해 동사하게 되는 노숙인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따뜻한 음료와 사랑이 담긴 먹거리, 그리고 방한에 도움에 되는 의류 등의 지원 등을 통해 돕고 있습니다. 이에 <노숙인등 복지협의회>와 <나눔의묵상회> 회원들, 사회복지회 법인 직원들은 12월~2월에 걸쳐 영등포역 주변과 을지로역 지하도, 서울역 광장 주변에 상주하는 노숙인들을 대상으로, 20여 차례 노숙인 야간 순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찬 거리에서 소외되고 있는 우리 이웃들을 위하여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2013년도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심포지엄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복음화를 위한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3년의 성과와 전망’을 주제로 교구의 장기 정책에 따른 본회의 3년 사업을 평가하고 향후 6년을 전망, 실천 전략을 세우기 위한 연구조사를 서강대와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고 많은 분들의 의견과 조언을 구하고자 11월 27일(수) 가톨릭회관 3층 강당에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제7회 카리타스 자원봉사 나눔잔치

카리타스자원봉사센터에서는 UN이 선포한 ‘세계 자원봉사자의 날(12.5)’을 기념하며, 한 해 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자원봉사로 사랑을 나누는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를 전하는 ‘카리타스 자원봉사 나눔잔치’를 개최하였습니다. 봉사자들이 꾸미는 공연, 기념미사, 잔치국수 나눔 등을 통하여 자원봉사의 참된 기쁨과 보람을 되새길 수 있었던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든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소식지 온라인 구독 및 온라인 참여 안내

본 <나눔> 소식지를 온라인에서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 독자 코너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은 검색창에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를 입력해 주세요. 인쇄물을 신청하신 분들에게는 인쇄물과 이메일을 모두 발송해 드립니다. 다만, 회원님께서서 ‘이메일 전환’으로 신청을 해주시면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지구도 살리고, 제각비 절감을 통해 더 많은 이웃에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전환신청하기
www.caritasseoul.or.kr/bokji, 02) 727-2254

받은 편지함

보낸 편지함

편지를 보내고
기다리는 마음은
설렘입니다.

하나 둘 날아드는 답장은
더없는 기쁨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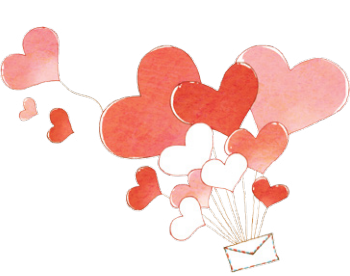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가
받은 정다운 답장,
따뜻한 말씀들을
모았습니다.

- 작은 기부로 날개 달린 천사가 되게 해주신 카리타스 감사합니다. 장하윤
- 좋은 기사. 매 회 감사합니다. 김정은
- 카리타스의 뜨거운 사랑을 가슴에 품고, 이 세상 가장 차가운 곳에서 뜨거운 피로 뜨겁게 사랑하며 나누는 자 되게 하소서. 주님. 이진옥
- 카리타스 가을호 크기가 더 커졌네요! 커진 책자만큼 웬지 카리타스도 많이 발전한 것 같아 기분이 좋아요. 항상 마음을 훈훈하게 해주는 소식들로 읽으면 행복해집니다. 박연희
-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많은 도움 바랍니다. 이미화
- 카리타스와 항상 함께하는 나눔과 봉사의 길이 계속 지속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김철기
- 사랑과 행복을 얻게 해 주시는 카리타스. 언제나 약한분들께 안식처가 되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장시영

이번에는 어떤 분이
나눔을 읽어 보실까?

우리가 보내드린 소식이
마음에는 드셨을까?

설렘과 기대감을 가득 담고,
독자 여러분께 정성 어린
편지를 보내 봅니다.



〈2행시로 짓는 나눔의 의미〉

나눔의 2행시는 평소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나눔의 의미를 2행시에 담아보는 것입니다. 매달 다른 제목으로 나눔의 의미를 재발견하려고 합니다. 두 글자에 나눔의 의미를 담아 맘껏 펼쳐 보세요.

▶ 당신이 생각하는 나눔의 의미를
두 글자에 담아 표현해 보세요.



참여방법

'감사'라는 단어에 나눔의 의미를 담아 2행시를 보내 주시면, 추첨을 통해 10분을 선정하여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등록단체 가톨릭 레드리본에서 제작한 '묵주 팔찌'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응모하실 때는 성함과 주소, 연락처를 함께 적어 주세요.



-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80번지 가톨릭회관 4층 <나눔> 담당자 앞
- 팩스 02)2263-0853
- 홈페이지 www.caritasseoul.co.kr/bokji
- 응모기간 2014년 1월 31일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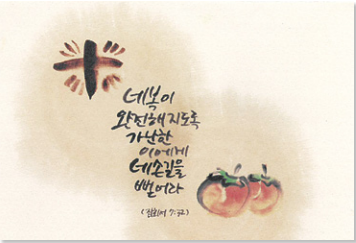
〈지난 호 우수작〉

모래가 아닌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는 주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두말없이 모인 우리들은 나눔을 실천합니다!

〈가을호 당첨자〉

박연희(경기도 광명시 광명5동)
장시영(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김철기(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로)

이진옥(서울시 성북구 돈암2동)
장하윤(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 카리타스 트친, 폐친을 소개합니다



팔로워

문재식 @yunja3256

웃음이 빛을 내리면 스스로 불타야 한다.

점모연 @jmoyoun

yjc2001 @yjc2001

Gabriel Kim @kingabriel70

김영선 @kyoytg1618

아이들이 아이들답게 사는 나라를 위하여 난 무엇을 해야할까..

박구열 @parkguil

가톨릭신자/성가대대장/좋은아버지/나쁜아들 후후/광고기획사운영하는 멋진 디자인 1

베로니카 @iphos22

farany @carmen1541

사진, 그리고 사랑.

Deo gratias + @jmg7274

요산요수 @maumdeio

사람이 세상을 아름답게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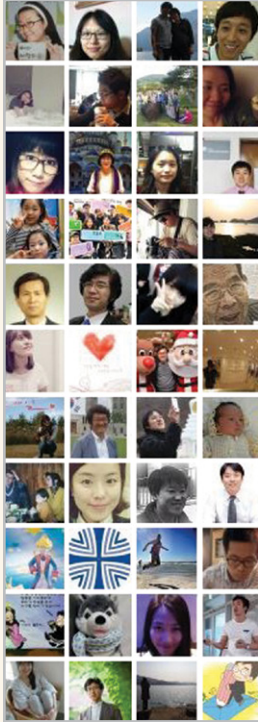
올드송 @Oldsong2

학생들 행복하게 살게 해주고픈 세네기진로셈

오달 @oedall

세계여행 이탈리아 스페인 파스타 광합문 커피 인천 프랭클린 후기 AB형외A 제주 스위스 소울 시 워터 운전면허대하어...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를 좋아하는 친구들



모아주신 정성,
사랑으로 나누었습니다



카리타스 후원의 현장

다인랩 컴퓨터 지원

(주)다인랩에서 2013년 3차 후원으로 8대의 컴퓨터를 지원해주었습니다. 2009년부터 5년간 컴퓨터가 필요한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소속 기관들에게 지속해서 컴퓨터를 지원해주었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리오더 청바지 지원

리오더에서는 청바지 및 청하의류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연중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브자리 이불 지원

이브자리에서는 지속해서 침구류를 지원해주고 계십니다. 이번 후원을 통해서도 겨울 침구류 지원을 통해 침구류가 필요한 많은 시설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신한카드 포인트 기부

신한카드 아름다운 홈페이지(<http://arumin.shinhancard.com>)에서 신한카드 포인트 기부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기부처를 검색해보세요. 카드 포인트로 기부도 하고 이웃사랑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기부 안내

자동차보험(온라인 제외)을 비교 견적 후 보험에 가입하면 본회로 후원
할 수 있는 「자동차 보험기부」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문의사항: 02-727-2437



제10회 김장, 쌀 나눔행사 진행결과

● 제10회 김장, 쌀 나눔행사 진행결과

1. 일 시: 2013년 12월 1일(일) 08:00
2. 장 소: 서초한우리정보문화센터
3. 대 상: 본당 내 무의탁어르신 및 소년소녀가정,
재가복지대상자 2,185가정
4. 봉 사 자: 약 350명(본당 봉사자 300명,
NH농협카드사 직원 50명)
5. 지원물품: 각 가정 쌀(10kg) 1포, 김치(10kg) 1포
6. 후 원: 바보의 나눔 5천만 원 / NH농협카드 5천만 원 /
한마음한몸운동본부 6백만 원 /
농협중앙회 김장재료 6ton /
김대중평화센터 쌀 200포

7. 지원결과:	지원본당 수	지원가정 수	지원시설 수
	151	229	41



세상을 바꾸는 작은 일,

“착한소비”

일상 속의 흔한 소비활동이 세상을 바꾸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상품과 서비스를 선택하기 전 그것이 담고있는 윤리적 가치를 고려해 구매하는 착한 소비, 값싸고 질 좋은 제품을 구매하는 합리적 소비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환경보호와 생산자에 대한 공정한 대가, 공공의 이익 등을 생각하는 소비를 말합니다. 친환경 제품과 공정무역 제품, 지역 생산품을 구매하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세상을 지금보다 더 아름답게 바꿀 수 있습니다.



가톨릭 사회적기업

[illegible]

나눔+

모두가 인간답게 사는 세상
2013 Winter vol.357

보내시는 분

□□□-□□□

봉함엽서

우편요금
수취인 후납요금

발송유효기간
2013.04.20 ~ 2015.04.19

서울중앙우체국
승인 41120호



사회복지법인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서울시 중구 명동길 80번지 가톨릭회관 4층

Tel 02.776.1314 Fax 02.754.5636

www.caritasseoul.or.kr/bokji

1 0 0 - 8 0 9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존엄한 삶을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데 헌신합니다



네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말라기서 5:14)

- 당신이 생각하는 나눔의 의미를 두 글자에 담아 표현해 보세요.

감

사

- 아래 사항을 적어 주세요.

이름

주소

연락처

* 본 정보는 독자선물 추천 및 발송을 위해서만 사용되며 이후에는 모두 파기됩니다.

- 카리타스에 하고 싶은 말씀을 적어 주세요.

-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의 후원금에 대하여

후원 참여는 사랑의 실천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사랑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희망이 되어 전달되고 있습니다.

본 법인은 250여 개 사회복지시설과 본당 사회사목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 나누어주신 후원금은 지정기부금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 : 02-776-8810)

나눔+

모두가 인간답게 사는 세상
2013 Winter vol.357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존엄한 삶을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데 헌신합니다